//hyu.wiki/COPE(%EC%BD%94%ED%94%84)

COPE(코프)

ERICA캠퍼스는 학제 융합에 기반한 IP(Intellectual Property)교육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'코프'(COPE)를 운영하고 있다. 융합과 창의(원천)를 특허화해 사업(기술이전, 창업)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, 2012년부터 ERICA캠퍼스 LIN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.

- **COPE**는 융합(Convergence), 창의·원천(Originality), 특허(Patent), 사업·창업(Enterprise)을 뜻하는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용어다.

운영

- IP교육을 위해 변리사(겸임교수)'특허와협상'과목 실시
- 공학, 인문학, 디자인 등 다양한 학생들이 학제간 융합 조(공학 2명, 인문 1명, 디자인 1명 등 4인 1조)를 이뤄 특허출원까지 진행

LINC사업

- LINC사업(2012~2016년) 단계에서의 COPE는 근 미래에 요구되는 특허분야를 대상으로 권리확보 등 특허 선점을 위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특허를 집중 출원했다. '광고 없는 광고기술', '스마트 의료', '뇌파', '증강현실'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. 일부 특허는 해외 출원 및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다.
- 현재 LINC+사업(2017년~) 단계에서는 대학 독자적 특허출원 형태인 이전 COPE를 고도화해 사전에 기업과 특허개발 분야 및 방법, 애로사항 등을 협의한 후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해당 특허를 이전시키는 '기업맞춤형 특허개발'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.

성과

- 신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3D피팅 분야 벤처기업인 ㈜자이언소프트와 특허개발 및 양도계약을 체결
- 2017년 1학기 '특허와협상' 수업을 통해 가상피팅에 관한 2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, 이중 18건의 출원특허를 이전